
I . 경영환경

- 2020년 상반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과 산업생산 증가율이 2분기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세계 경기가 수축하는 모습을 보임
- 우리나라도 2020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2분기 연속 하락을 기록함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 2/4분기 수출입 증가율 등 주요 지표가 전분기에 이어 크게 하락함
 -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2020년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 경기 회복이 제한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한국은행은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더디고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로 동결함
 - 한국은행은 국내경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및 채권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60bp대에서 박스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신용스프레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발행규모가 확대되고 금리 메리트에 따른 수요 유입의 영향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임
- 2020년 2/4분기 가계부문의 현금 및 예금 거래는 축소된 반면, 보험 및 연금, 채권, 국내외 주식, 투자펀드 거래는 증가함
 -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2020년 1/4분기 13.3%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후 2/4분기에 반등하여 15.1%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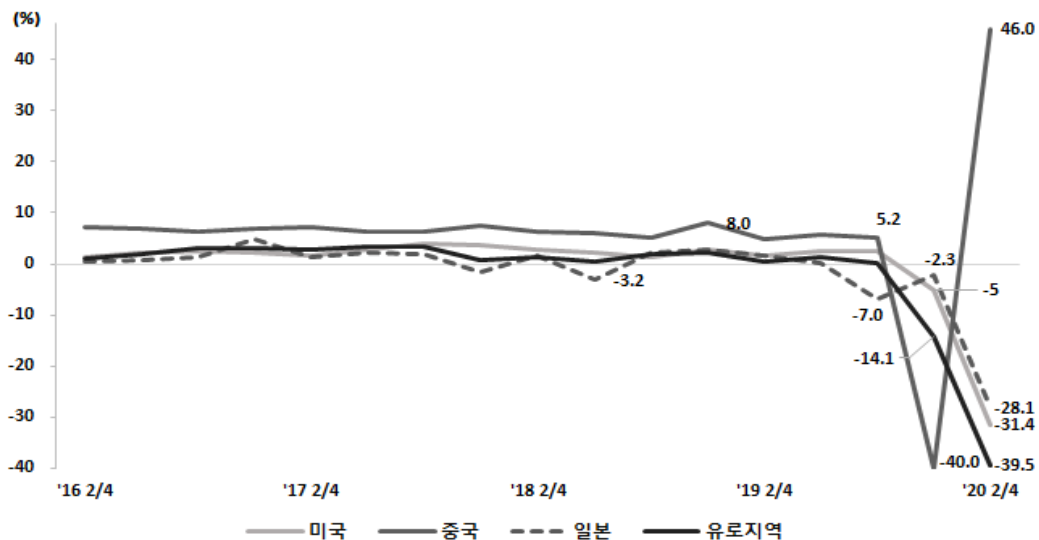
1. 경제

가. 세계경제

■ 2020년 2/4분기 미국, 일본,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중국은 빠른 경제 회복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2020년 2/4분기 미국, 일본, 유로지역의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각각 -31.4%, -28.1%, -39.5%로, 전분기에 비해 각각 26.4%p, 25.8%p, 25.4%p 하락함. 미국과 유로지역은 2분기 연속 역성장하였고, 일본은 3분기 연속 역성장함
- 중국의 2/4분기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46.0%로, 전분기에 비해 86.0%p 상승함

〈그림 1〉 주요국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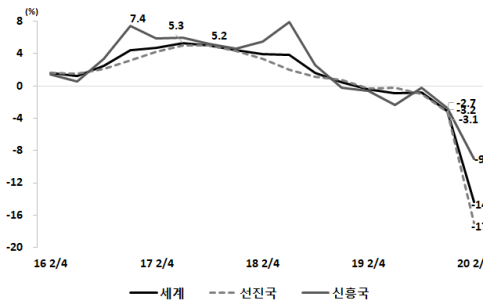


■ 2020년 2/4분기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과 산업생산 증가율은 각각 큰 폭으로 하락하여, 2분기 연속 급격한 하락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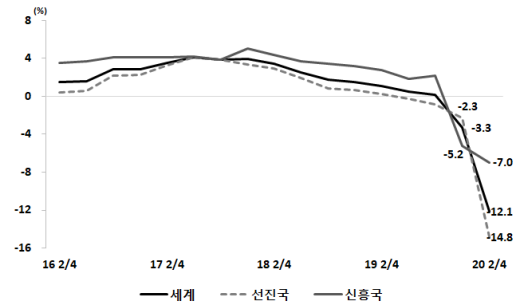
- 2020년 2/4분기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3.8%p 하락한 -17.0%를 기록하였고,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6.4%p 하락한 -9.1%를 기록함

- 2020년 2/4분기 선진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2.5%p 하락한 -14.8%를 기록하였고, 신흥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8%p 하락한 -7.0%를 기록함

〈그림 2〉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그림 3〉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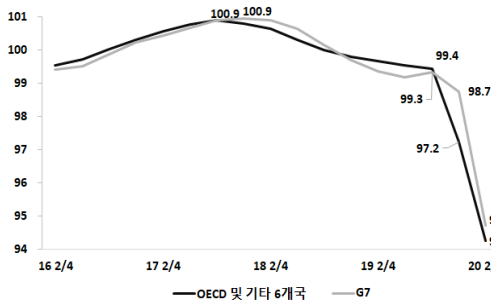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2020. 10)

■ 세계 경기선행지수¹⁾는 2020년 2/4분기 94.2를 기록하며, 전분기에 이어 대폭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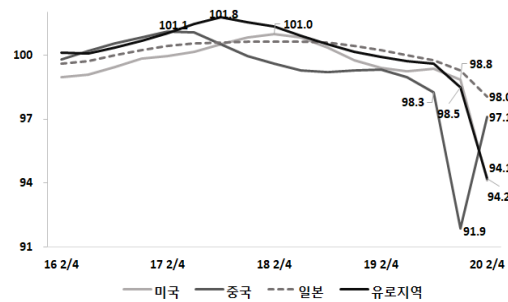
- 2020년 2/4분기 G7의 경기선행지수는 94.7로 전분기보다 4.0 하락하였고, 미국과 유로지역, 일본은 전분기보다 각각 4.7, 4.3, 1.3 하락한 94.1, 94.2, 98.0을 기록함

- 2020년 2/4분기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5.2 상승한 97.1로, 전분기에서 최저점을 기록한 후 반등함

〈그림 4〉 세계 경기선행지수



〈그림 5〉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주: 1)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2) 기타 6개국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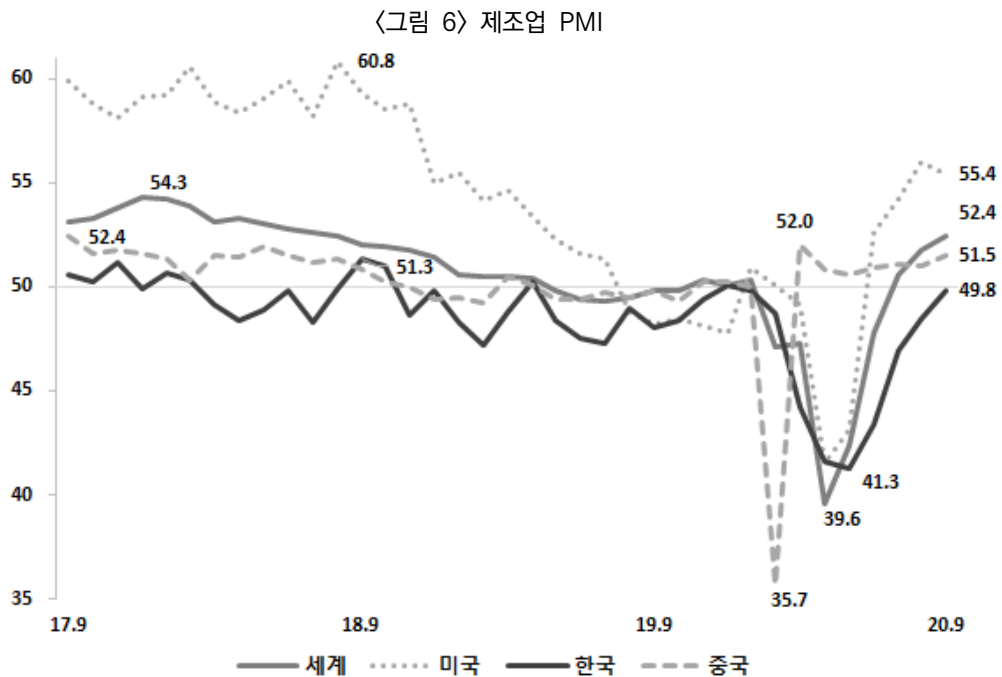
자료: OECD

1)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²⁾는 2020년 4월, 11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후 5개월 연속 반등함

○ 2020년 9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2.4로, 2020년 4월 39.6을 기록한 후 5개월 연속 상승함

○ 2020년 9월 주요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미국 55.4, 중국 51.5, 한국 49.8로, 각각 4월, 2월, 5월 최저치를 기록한 후 모두 반등함



주: 전분기 대비, 3개월 이동평균임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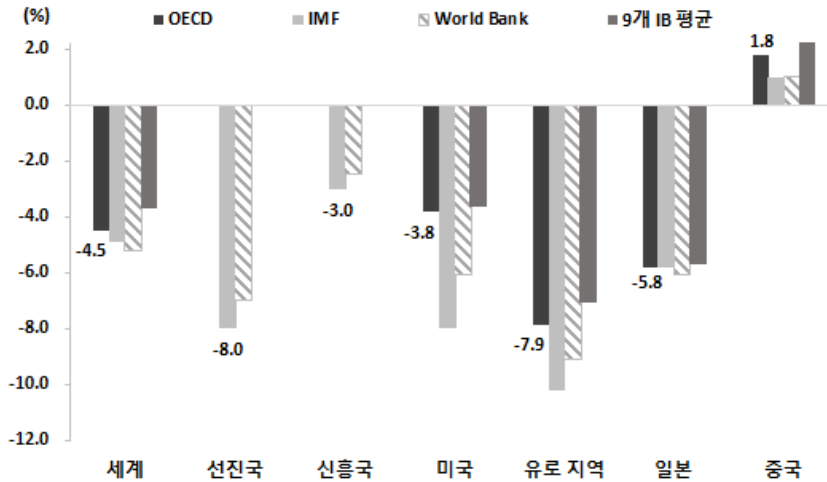
■ 주요 기관들은 2020년 상반기 경제위축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규모 정책 대응과 중국의 기대 이상의 회복을 고려하여,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함

○ OECD는 봉쇄조치가 완화되고 시장 활동이 재개되면서 세계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0%에서 -4.5%로 상향 조정함³⁾

2)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3) OECD(2020. 9),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그림 7〉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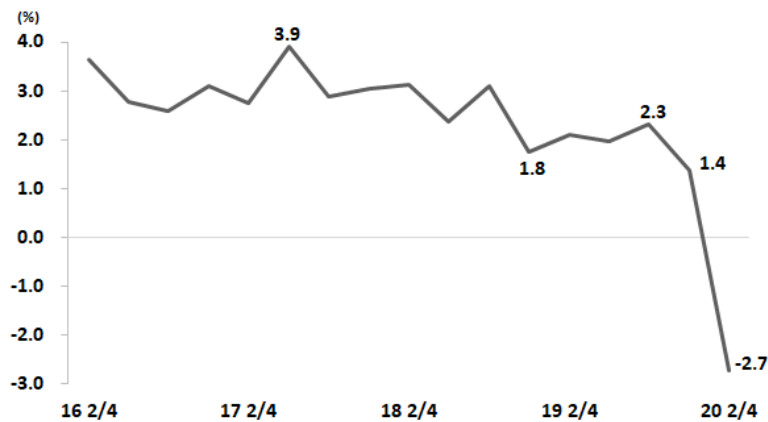
자료: IMF(2020. 6); OECD(2020. 9); World Bank(2020. 6); 9개 IB 평균(2020. 9)

나. 국내경제

■ 2020년 2/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7%로 전분기 대비 4.1%p 감소함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 수출입이 크게 하락하면서 2020년 2/4분기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 감소에 영향을 미침

〈그림 8〉 국내 경제성장률



주: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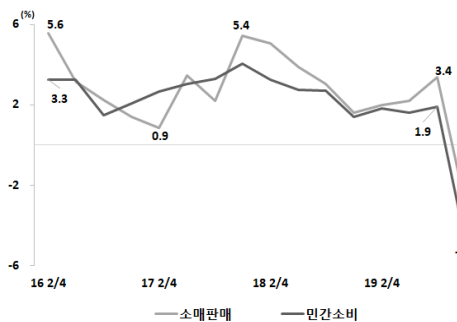
■ 2020년 2/4분기 민간소비 및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 하락 후 반등하였고,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에 이어 큰 폭으로 하락함

○ 2020년 2/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과 소매판매 증가율은 각각 -4.0%, 1.9%를 기록함

○ 2020년 2/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보다 16.5 하락한 76.7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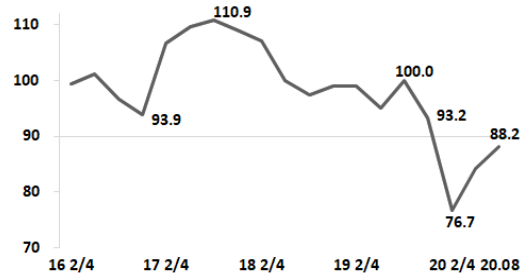
○ 2020년 7월과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각각 84.2, 88.2를 기록함

〈그림 9〉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10〉 소비자심리지수



주: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2/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과 건설투자 증가율은 하락하고,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은 상승함

○ 2020년 2/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과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각각 3.3%p, 4.3%p 하락하여 각각 4.0%, -0.1%를 기록하였으며,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7%p 상승하여 4.1%를 기록함

- 설비투자 증가율은 5월 중 선박 등 운송장비, 정밀기기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⁴⁾ 하락함

○ 2020년 2/4분기 기계수주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5.5%p 하락하여 1.1%를 기록하였고, 건설수주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20.0%p 상승하여 21.7%를 기록함

- 기계수주 증가율은 5월 중 건설업 등 민간, 전기업 등 공공에서 감소하며⁵⁾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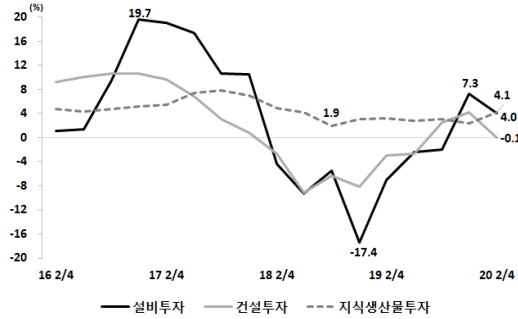
- 건설수주 증가율은 5월과 6월 중 주택, 공장·창고 등 건축에서 증가하여⁶⁾ 상승함

4) 통계청 보도자료(2020. 6),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

5) 통계청 보도자료(2020. 6),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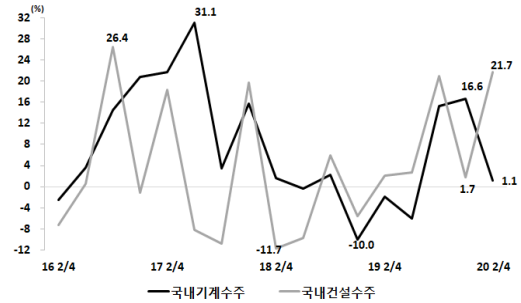
6) 통계청 보도자료(2020. 6),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7), “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11〉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12〉 기계수주¹⁾, 건설수주²⁾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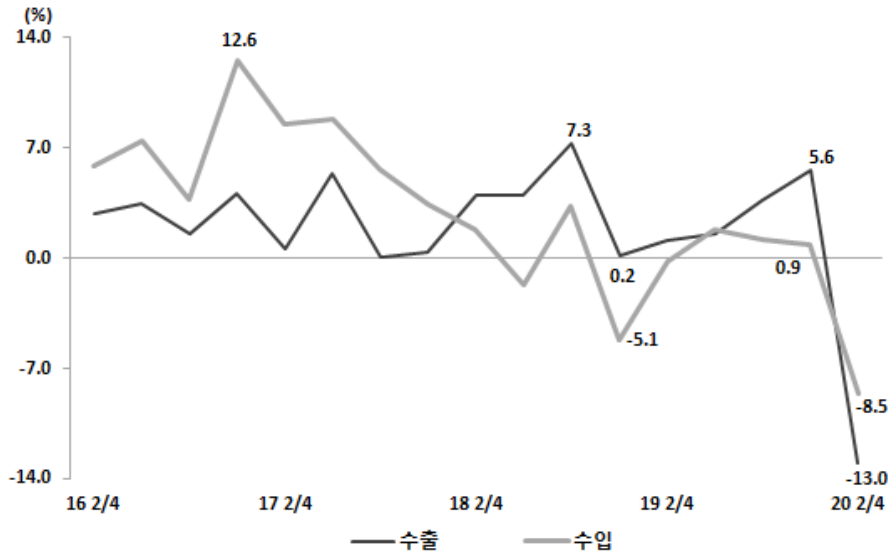


주: 1) 선박은 제외함
2) 경상임
자료: 통계청

■ 2020년 2/4분기 수출입 증가율은 대폭 하락함

○ 2020년 2/4분기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8.6%p 하락하여 -13.0%를 기록하였고,
수입 증가율은 9.4%p 하락하여 -8.5%를 기록함

〈그림 13〉 수출입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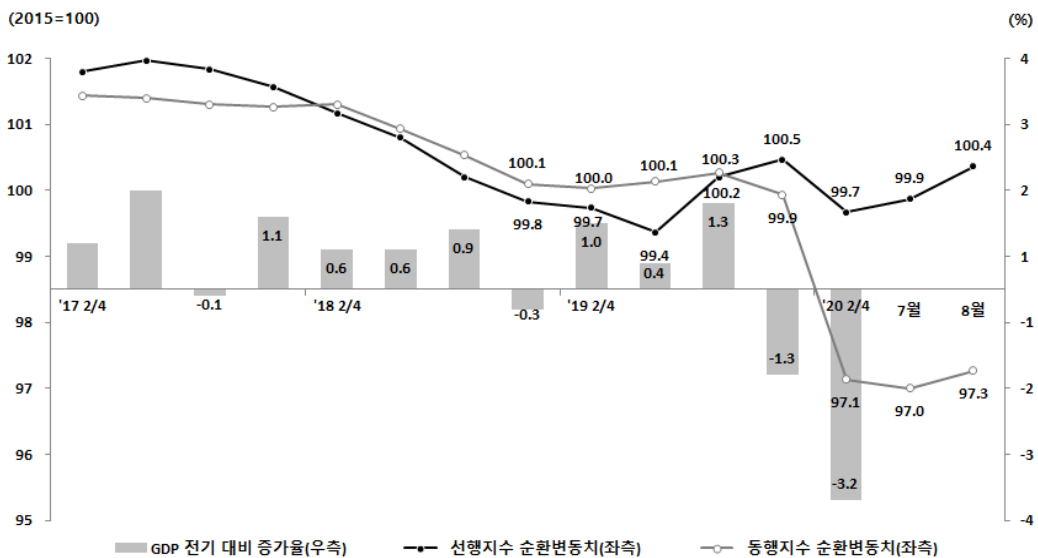
■ 2020년 2/4분기 경제성장률, 선행지수⁷⁾ 순환변동치, 동행지수⁸⁾ 순환변동치가 모두 하락하였으나, 2020년 7월과 8월에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2020년 2/4분기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0년 4월과 5월 경제심리지수 등이 감소하여⁹⁾ 전분기보다 0.8 하락한 99.7을 기록함

○ 2020년 2/4분기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0년 4월과 5월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감소하여¹⁰⁾ 전분기보다 2.8 하락한 97.1을 기록함

○ 2020년 7월과 8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7.0에서 97.3으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9에서 100.4로 각각 상승함

〈그림 14〉 GDP 증가율과 순환변동치



주: 2020년 7월과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7)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가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8)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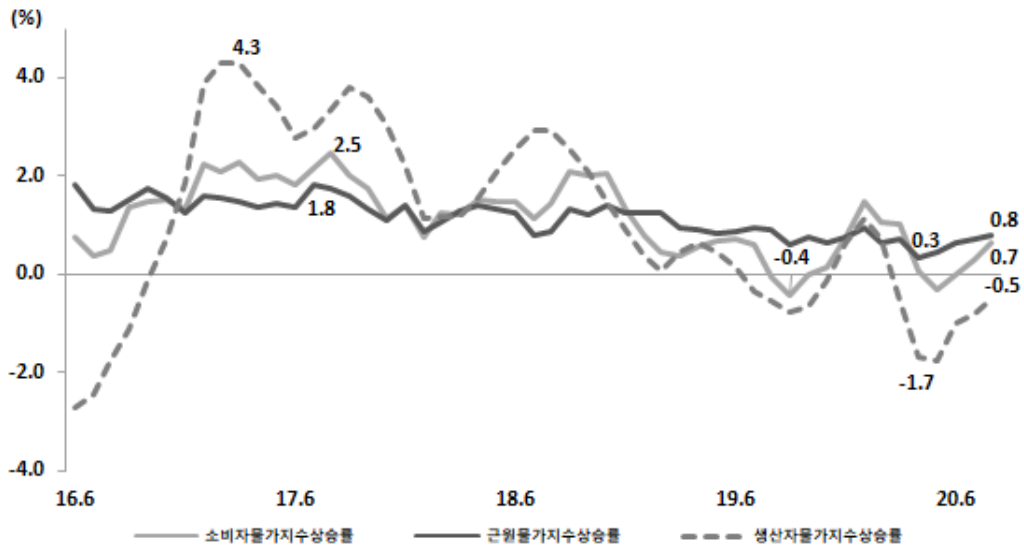
9) 통계청 보도자료(2020. 5), “2020년 4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6),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

10) 통계청 보도자료(2020. 5), “2020년 4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6),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0년 5월 -0.3%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2019년 9월, -0.4%)에 근접하였으나, 그 후 3개월 연속 반등함

○ 2020년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장마·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며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하여 0.7%를 기록함¹¹⁾

〈그림 15〉 물가상승률



주: 1)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

2) 근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 상승률임

자료: 한국은행

■ 주요 기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세가 위축되어 2020년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 경기 회복이 제한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한국은행과 KDI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입이 크게 위축된 것을 고려하여 2020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1.3%, -1.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주요 해외투자은행¹²⁾은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최저 -2.0%(UBS)에서 최고 -0.6%(Nomura), 평균은 -1.4%로 전망함

11) 기획재정부(2020. 9), 「최근경제동향」

12) 9개 IB(Barclays, BoA-ML, Citi, BnP Paribas, Goldman Sachs, J.P. Morgan, Nomura, Societe Generale, UBS), 2020년 9월 말 기준임

〈표 1〉 국내 주요 기관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8	2019	2020(F) ¹⁾		2021(F) ¹⁾	
			한국은행 ²⁾	KDI ³⁾	한국은행 ²⁾	KDI ³⁾
실질 GDP	2.9	2.0	-1.3	-1.1	2.8	3.5
민간소비	3.2	1.7	-3.9	-4.6	3.8	2.7
설비투자	-2.3	-7.5	2.6	4.2	6.2	4.8
건설투자	-4.6	-2.5	-0.7	1.1	-0.4	3.1
지식생산물투자	4.4	3.0	2.9	3.4	3.5	4.1
상품수출	3.3	0.5	-4.5	-2.5	4.8	3.7
상품수입	2.0	-0.8	-1.8	-0.7	5.9	4.6
실업률	3.9	3.8	4.1	4.0	3.7	4.1
소비자물가	1.5	0.4	0.4	0.5	1.0	0.7
경상수지	775	600	540	567	550	581
상품수지	1,101	769	640	644	730	658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326	-169	-100	-76	-180	-77

주: 1)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20. 8),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20. 9), 「KDI 경제전망」

자료: 한국은행, KDI

2. 금융

가. 금리

■ 한국은행은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더디고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에서 동결하고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함¹³⁾

○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5월 기준금리 인하(0.25%p)가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회복하고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막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¹⁴⁾

- 시장금리는 완화적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주가는 상당폭 조정된 후 반등하였으며, 실물경제는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부진이 심화되고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¹⁵⁾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국내경제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음

- 8월 이후 국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 한국은행은 국내경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당분간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되면서 단기금리의 상승압력이 제한적이나 대외금리 상승과 수급부담 영향으로 장기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되어 장단기 금리 격차는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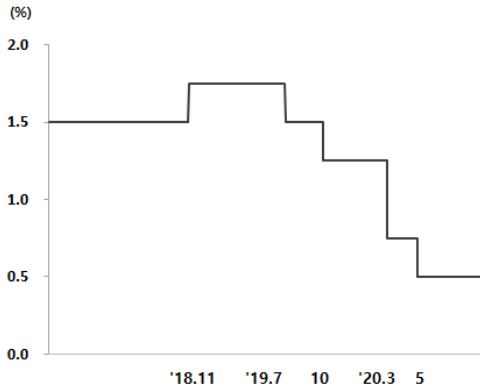
○ 위험선호 심리가 확대됨에 따라 장기물 위주의 금리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채 수익률 곡선 기울기는 2018년 2월 이후 가장 가팔라짐

13) 한국은행(2020. 8. 27), “통화정책방향”

14) 한국은행(2020. 10. 14), “2020년도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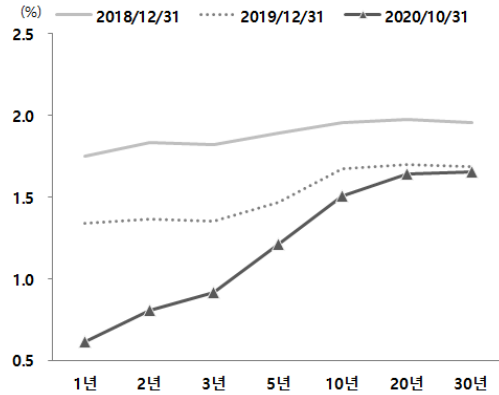
15)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7만 명(7월), -27.4만 명(8월)임

〈그림 16〉 기준금리



자료: Bloomberg

〈그림 17〉 국채 수익률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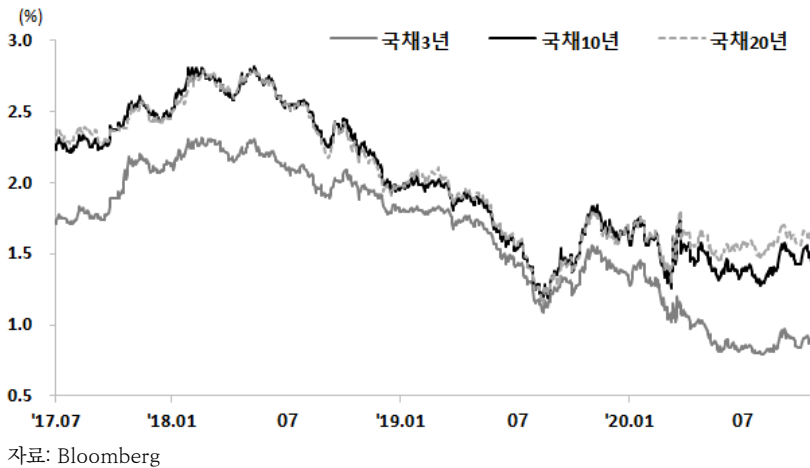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국고채 금리는 정부의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한국은행의 채권매입 확대와 글로벌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보임
-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¹⁶⁾인 가운데 채권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크게 확대되어 국고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함
- 그러나 9월 3년물 국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과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전환 등의 영향으로 0.8% 초반까지 하락함
- 이후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 기대, 미 대선 결과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며, 3년물(0.8~0.9%)과 10년물(1.4~1.5%) 국채 금리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임

16) 1년에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1961년 이후 59년 만으로 총 846조 원 규모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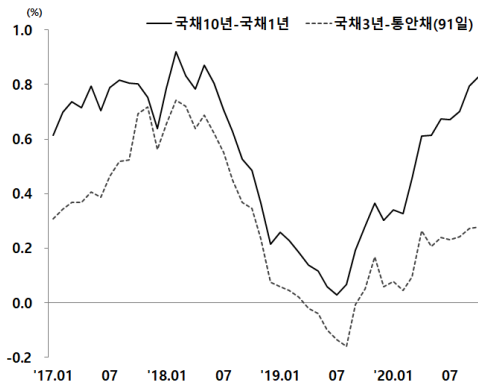
〈그림 18〉 국채 금리 추이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채권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 스프레드는 60bp에서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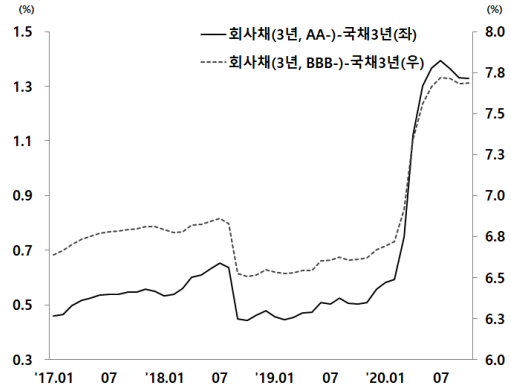
-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 - 3년물)는 기준금리 동결과 국채발행 물량 증가에 따른 장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으로 10월 초 63.9bp까지 확대됨
 - 단기금리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 신용 경계감 완화 등의 영향으로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함
- 신용스프레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발행규모가 확대되고 금리 메리트에 따른 수요 유입의 영향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임
 - 9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발행규모는 각각 전월 대비 12.9%, 12.0% 확대됨

〈그림 19〉 장단기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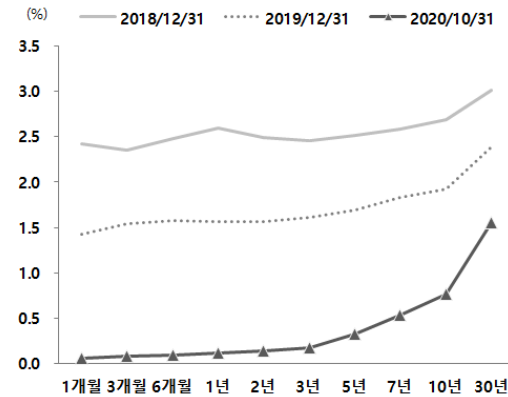
〈그림 20〉 신용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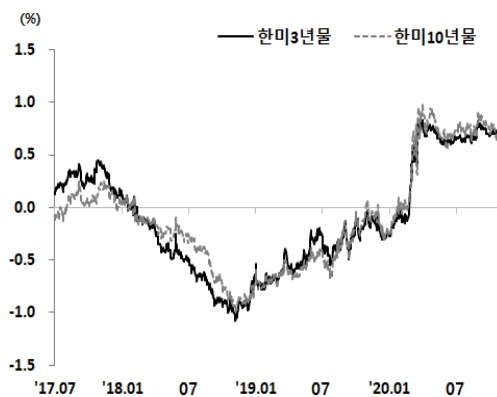
- 미국 국채 금리는 경기부양책 합의 지연, 미·중 갈등 심화 등의 하락요인과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고용지표 호전 등의 상승요인이 혼재하며 0.5~0.8%(10년물)에서 등락을 나타냄
- 8월에는 미국 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종료(7월 25일)와 경기부양책 합의 지연 등의 영향으로 금리 상승세가 제한되어 10년물 국채 금리는 0.6%대를 기록함
- 그러나 9월 양호한 고용지표와 10월 경기부양책 합의 기대,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으로 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함
- 10월 말에는 미국 대선 영향으로 지난 6월 이후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0.8%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0.2%대로 상승함

〈그림 21〉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자료: Bloomberg

〈그림 22〉 한국과 미국 금리차(3년, 10년)



자료: Bloomberg

■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0년 4/4분기 금리 전망치를 지난 7월 전망치에 비해 미국은 하향, 한국은 상향 조정함

- 2020년 4/4분기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0.76%로 지난 7월 전망치 0.87%에 비해 0.11%p 하향 조정함
- 한편 한국 국채(10년) 금리는 1.41%로 지난 7월 전망치 1.34%에 비해 상향 조정하였으며, 3/4분기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표 2〉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미국 국채(10년) 금리			한국 국채(10년) 금리			한국 국채(3년) 금리		
'20. 4Q	'21. 1Q	2Q	'20. 4Q	'21. 1Q	2Q	'20. 4Q	'21. 1Q	2Q
0.76	0.86	0.96	1.41	1.51	1.6	0.82	0.89	0.93

주: 2020년 4분기와 2021년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0월 말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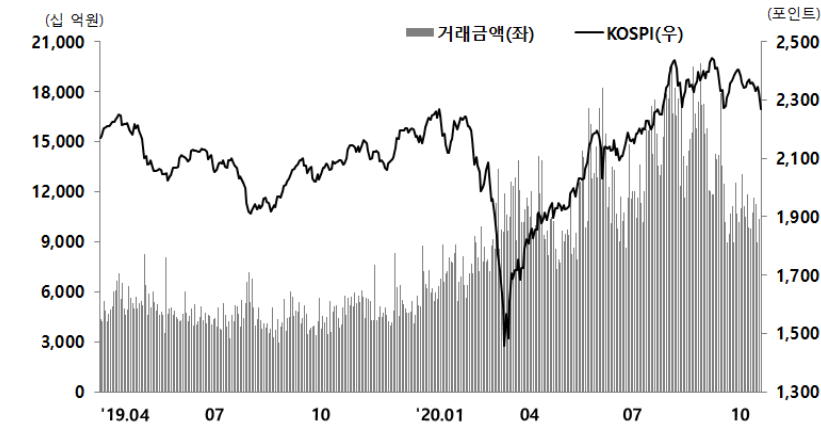
나. 추가

- 코스피(KOSPI)지수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등의 상승요인과 코로나19 재확산,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등의 하락요인이 혼재하며 등락을 반복함
- 8월 코스피는 국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의 회복,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 등으로 2,400선까지 상승함

- 그러나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과 미국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 지연,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며, 2,300~2,40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음

〈그림 23〉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다. 환율

- 원/달러 환율은 코로나19 재확산, 미국 경기부양책 합의 변화 등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미 달러화 약세 및 위안화 강세,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등으로 1,130원선까지 하락함
- 9월 원/달러 환율은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과 미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과 등으로 1,180원대 지지선을 하회함
- 10월에는 중국의 양호한 경기 회복세와 위안화 강세가 이어지고 미 대선의 Blue-Wave¹⁷⁾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1,130원대를 하회함
 -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하고 내수 관련 품목 중심의 생산 호조세를 보였으며, 중국 국채의 WGBI¹⁸⁾ 편입이 결정됨에 따라 위안화는 강세를 보임

17) 블루 웨이브(Blue-Wave)란 미국의 하원과 상원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는 것을 뜻함

18) 세계국채지수(WGBI)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국채가 편입된 글로벌 채권지수로 런던증권 거래소의 지수 관련 자회사 FTSE 러셀이 관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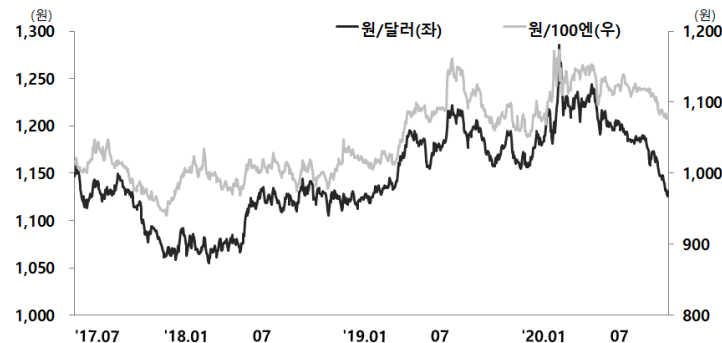
■ 원/엔 환율은 미국의 경기부양 기대 및 세계 증시 강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완화 영향으로 1,100원 아래로 하락함

○ 7월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던 원/엔 환율은 8월 28일 아베 총리 사임 발표로 1,121원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후 추가 상승세가 제한됨

- 아베 총리 사임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일부 확대되었으며, 일본 닛케이지수가 하락 전환¹⁹⁾되고 엔화 가치가 소폭 상승함²⁰⁾

○ 원/엔 환율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백신 조기 실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세계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엔화의 매도세가 이어져 하락세를 나타냄

〈그림 24〉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0년 4/4분기에 원/달러와 달러/유로 환율이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과 미 대선 관련 이슈로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달러/유로 환율은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19) 일본 Nikkei225 지수 23,208.86(8.27) → 22,882.65(8.28)

20) 연합뉴스포맷(2020. 9. 1), “엔화, 아베 사임에도 강세 제한적인 이유는”

〈표 3〉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20. 3Q	4Q	'20. 3Q	4Q	'20. 3Q	4Q
Morgan Stanley	1,170	1,100	106	102	1.17	1.20
Mizuho Bank		1,100		103		1.17
SCB Securities		1,100		105		1.17
Wells Fargo		1,110		105		1.18
BNP Paribas		-		102		1.23

주: 2020년 4분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0월 말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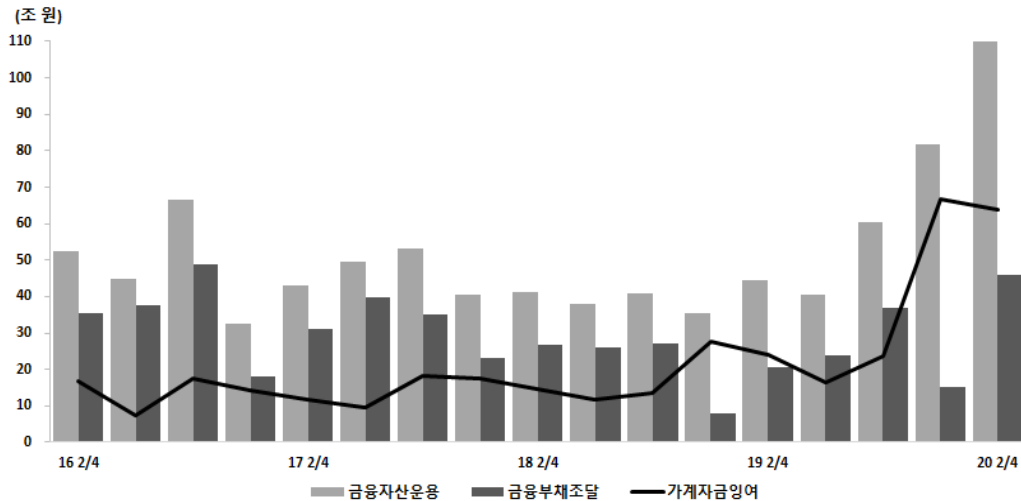
3. 자금흐름

■ 2020년 2/4분기 가계부문²¹⁾의 자금잉여²²⁾는 64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2.8조 원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2020년 2/4분기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운용은 110.1조 원으로 2009년 통계치 작성 이래 최대치이며, 금융부채조달은 46.1조 원으로 64조 원의 자금잉여가 발생함

- 2020년 5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2020년 2/4분기 가계소득이 대폭 확대됨

〈그림 25〉 가계자금잉여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2/4분기 가계부문의 현금 및 예금 거래는 전분기 대비 감소한 반면, 보험 및 연금, 채권, 국내외 주식, 투자펀드 거래 모두 전분기 대비 증가함

○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2020년 1/4분기 13.3%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후 2/4분기에 반등하여 15.1%를 기록함

2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의미함

22) 가계자금잉여는 가계부문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한 금융자산 규모에서 조달한 금융부채 규모를 차감한 금액이며, 이는 가계부문이 금융산업에 순공급한 자금을 의미함

〈표 4〉 가계금융상품 거래

(단위: 조 원, %)

구분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거주자 발행주식 및 지분	비거주자 발행주식	투자펀드	기타	합계
2009	86.4	53.8	(37.1)	16.1	9.7	-2.2	-18.7	-0.1	145.0
2010	95.3	65.9	(44.7)	11.1	5.9	-0.2	-30.0	-0.6	147.4
2011	70.9	72.3	(45.6)	11.1	7.9	-0.3	-5.9	2.5	158.5
2012	36.9	99.0	(79.7)	10.5	-6.1	-0.4	-14.2	-1.5	124.2
2013	60.6	91.2	(60.5)	6.1	0.7	-0.3	-7.3	-0.2	150.7
2014	76.0	90.5	(53.2)	4.0	-0.8	0.8	-3.5	3.1	170.0
2015	107.9	89.8	(40.3)	4.7	5.3	1.7	9.5	4.1	223.0
2016	118.3	87.7	(41.0)	-0.9	9.9	0.1	-2.6	1.2	213.7
2017	101.2	83.3	(47.7)	-11.8	0.0	1.1	-3.9	4.7	174.6
2018	74.3	61.4	(40.3)	0.1	17.0	1.8	0.0	-2.1	152.4
2019	130.7	72.0	(39.7)	-17.6	-7.9	2.1	2.0	0.1	181.4
2020 1/4	66.0	10.9	(13.3)	-3.0	9.9	1.9	-6.7	2.8	81.8
2020 2/4	54.2	16.6	(15.1)	11.3	17.3	4.0	4.0	2.7	1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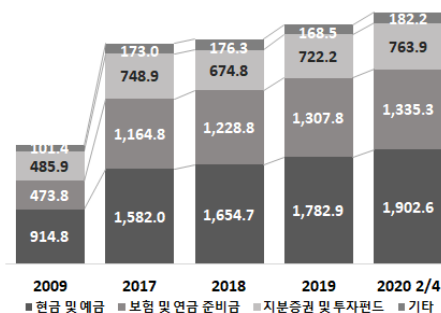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전체 거래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2/4분기 가계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1.9%로 2019년에 비해 0.9%p 하락함

○ 가계 자산 중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2017년부터 상승하여 2020년 2/4분기 45.5%를 기록함

〈그림 26〉 가계금융자산 구성(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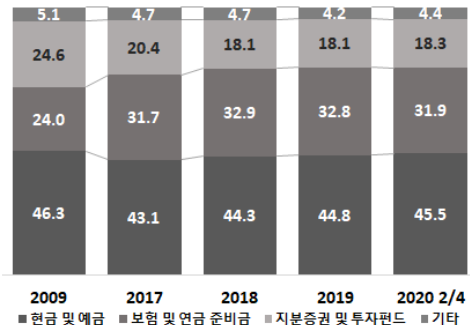
(조 원)



자료: 한국은행

〈그림 27〉 가계금융자산 구성(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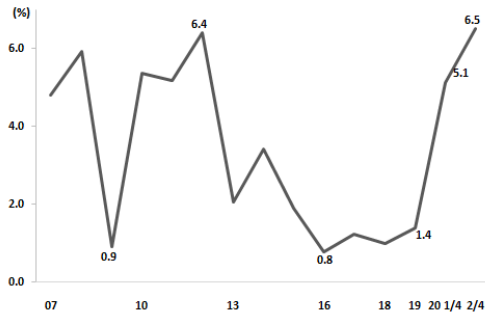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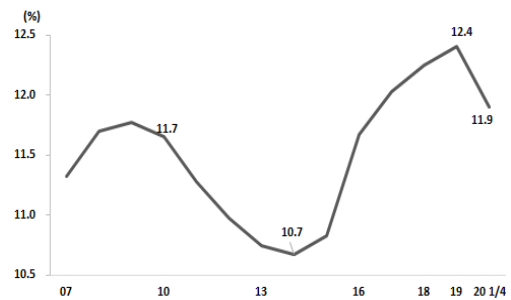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2/4분기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6.5%를 기록하여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20년 1/4분기 11.9%를 기록하며 전년도보다 0.5%p 하락함

〈그림 28〉 명목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그림 29〉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주: 1)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
- 2) 2020년 증가율은 통계청 가구동향조사 통계 개편(고시 제2020-111호)에 따라 '2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에서 '2인 이상 가구 비농림어가'로 변경, 발표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자료: BIS

4. 규제·제도

■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2020. 9. 25 금융위원회)

-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1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대폭 완화함. 소액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임

■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도입(2020. 9. 17 금융위원회)

- 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에 힘입어 현재 국내에서 100여 대의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에 있음. 2020년 10월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시 보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을 개발하여, 12개 손해보험회사는 2020년 9월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판매 개시할 예정임

■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020. 7. 27 금융위원회)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저축성보험 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불완전판매 요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 지환급금 보험에 한하여 전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함. 또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 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화함

■ 공유경제하에서 보장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동차보험 화물 유상운송 특약(6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 도입(2020. 7. 22 금융감독원)

-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하여 돈을 받고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6인승 이하 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는 유상운송보험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됨. 이에 금융감독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가입하여 유상운송 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 수리하였음(보험회사는 2020년 8월부터 판매 예정)

-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보험 표준약관 등 명확화 추진(2020. 7. 6 금융감독원)
-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에 대해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재해로 보장함을 명시함